

순천 청년들, 정원박람회 흥행 성공 기대감 높다

시, SNS 청년 인식 설문 “순천 변화 기대 크다”74%

순천 시정 현안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청년인식 설문조사 결과 순천청년 74%가 순천시 변화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보였다. 청년들은 개별단위 발전보다 관광도시 특구 광역화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순천시가 청년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워를 대상으로 지난달 2-18

일 4대 시정 현안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흥행,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조립장 유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경전선 노선 우회’에 대한 청년 인식 및 기대 정도를 물어봤다.

순천시 변화에 기대감(74%)을 보인 청년(135명)들은 정원박람회 흥행에 기대(85%)를 보였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치 74%,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71%, 경전선 노선 우회 66% 순으로 관심을 보였다.

청년들은 정원박람회 개별 단위 발전

보다 관광도시(특구) 등 광역화에 관심을 드러냈다. 과거 자연, 생태 중심의 자연 친화적인 인식보다 시정 현안사업 경제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시가 제시한 ‘인근 도시 연계 메가시티’나 ‘세계적인 생태도시’라는 정원박람회 이후 밀그림과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조립장 유치에서는 압도적인 순천시 미래산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화산업 시장성이 높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은 수

도권 대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써한다고 주문했다.

순천청년의 인식 저변에는 생태수도의 ‘본질’과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기대감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 관계자는 “청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설문조사를 통해 일류순천 변화를 살피고 시민 가치가 우선한 시정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구축 광양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광양시는 시가 운영하는 ‘희망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31일 밝혔다.

2010년부터 운영 중인 광양시 희망일자리센터 홈페이지는 고용노동부 취업포털 ‘워크넷’의 지역별·직종별 채용정보를 활용하는 수준으로 그동안 효과적인 일자리 정보 전달과 편의성 부족이 지적돼 왔다.

시는 시비 2억원을 투입해 6월까지 영역 사전절차를 마치고 7월부터 연말까지 ‘보이는 일자리’ 홈페이지를 전격 구축한다. 새롭게 구축될 플랫폼에는 민간기업 뿐 아니라 광양시를 비롯한 공공기관 일자리 정보를 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해, 광양시민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민관의 모든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양수발전소’ 유치 협약 구례군-한국중부발전

구례군은 31일 군청 상황실에서 ‘양수발전소 유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구례군과 구례군의회, 한국중부발전 3개 기관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양수발전소 유치 신청을 위한 공동 협력을 약속했다.

구례군은 양수발전소 유치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군의회와 함께 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구례=김상현 기자

수국개화 앞둔 보성 윤제림 ‘인기’ 오늘부터 유료화 전환

보성군 겸백면 주월산 일대에 자리 잡고 있는 소통의 숲 ‘윤제림’이 힐링 공간으로 여행객들에 사랑을 받고 있다.

31일 보성군에 따르면 ‘윤제림’은 100만평(337ha) 규모로 6월 중 수국 4만본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윤제림은 색깔별로 식재된 수국뿐 아니라 붓꽃, 버드나무 등이 가득하다. 힐링 코스 산책길을 걷다 보면 포토존도 만나볼 수 있다.

치유의 숲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1969년 식재한 해송과 편백나무 6만본이 내뿜는 피톤치드를 만끽하며 산림욕도 즐길 수 있다.

윤제림은 즐길 거리가 다양하다. 주월산 정상에 패러글라이딩 체험이 가능하고 전남도 민간 정원 제12호로 지정된 성립원이 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임산물 따기 체험은 모노레일을 타며 숲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윤제림은 숲속 야영장 야영데크(15개소), 숲속의 집(12동), 아치하우스(18동), 단독숙박시설(6동) 등을 갖춰 300명이 동시 투숙할 수 있는 산림 휴양 시설도 갖췄다.

무료 개방했던 윤제림은 방문자 편의 시설 확충 등을 고려해 1일부터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윤제림 홈페이지(yunjerim.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은지 기자

‘여수시장배 e스포츠대회’ 7월29일 첫 개막

여수시장배 e스포츠대회가 7월 29-30일 흥국체육관에서 열린다.

31일 여수시에 따르면 e스포츠의 건강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처음 시장배 e스포츠대회를 마련했다. 지역 청소년과 전남·광주 소재 대학생이 인기 게임 종목에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대회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5인 단체전 △피파온라인4 개인전 △배틀그라운드 4인 단체전 등 3개 종목으로 나눠 치러진다.

참가자들은 오는 7월8-22일 매주 주말 온라인 예선전을 치르며 4강전과 결승전은 7월29-30일 흥국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참가는 2-23일 네이버 폼을 통해 △청소년의 경우 학교 대항전으로 학교당 종목별 2팀 이내 △대학부의 경우 e스포츠 학과를 제외한 전남·광주 소재 대학생이

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총 128팀 352명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여수시는 종목별 1-3위는 시장상, 종목별 우승팀에 트로피를 수여하며 12월 개최 예정인 2023 한·중·일 e스포츠대회 관전 특전도 부여할 예정이다.

결승전이 열리는 흥국체육관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억의 오락실·유튜브 크리에이터·코스프레·캐릭터 페이스페인팅·캐릭터 헤어뷰티·즉석 사진·보드게임 등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카카오tv 채널 ‘여수시장배 e스포츠대회’를 확인하면 더 많은 대회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여수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e스포츠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며 “e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 매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고흥군이 전남권 최초로 야간 관광특화 상품으로 기획된 ‘녹동향 드론쇼 공연’으로 전국적으로 관심과 이목을 끌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녹동향 드론쇼’ 야간 관광 콘텐츠 눈길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9시

고흥군 녹동향이 매주 토요일 야간 관광 길러콘텐츠로 요즘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31일 고흥군에 따르면 전남권 최초로 야간 관광특화 상품으로 기획된 ‘녹동향 드론쇼 공연’이 지난달 13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3번의 공연만으로 전국적 관심과 이목을 끌고 있다.

매주 녹동향 일원은 연인과 가족 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찾아와 녹동향어거리 식당가는 물론 녹동 건어물과 활어회 센터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손님들로 북적이며, 지역상권은 활력을 찾고 있다.

이에 더해 주말 드론쇼 공연과 연계한 지역관광과 농수축산물 홍보 등 직·간접적으로 관광경제 낙수효과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드론쇼 공연은 고흥과 관련된 콘텐츠를 포함해 계절별, 기념일별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경이로운 연출을 선보이며, 녹동향을 찾는 관광객에게 매주 새로운 즐

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녹동향 드론쇼는 혁신적인 군집 비행 기술과 예술적 감각이 더해진 新드론 콘텐츠 개발 드론 전문기업이 맡아 진행함으로써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군집비행의 묘미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0일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기원을 위해 우주산업의 중심 고흥, 누리호 발사, 인공위성&지구, 인사하는 우주인 등 이벤트 공연을 선보인바 있다.

25일 제21회 녹동바다불꽃축제 기념으로 기존 녹동향 드론쇼 규모(500대) 2배인 1000대 드론 군집비행으로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고흥군은 11월까지 매주 드론쇼 공연을 위해 녹동향 일원에 행사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정기 드론쇼 공연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만큼 ‘드론쇼’하면 고흥이 떠오를 수 있도록 ‘드론중심도시 고흥’의 입지를 다져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장흥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 속도

장흥군은 악취 없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해 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은 농가의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가축사육 환경 개선으로 농가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하고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장흥군은 총 128농가가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됐으며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2022년 깨끗한 농장지정 신청수에서 1위를 기록했다.

장흥군은 깨끗한 농장지정 전국 1위를 목표로 적극 홍보중이며, 현재 57농가가 심사 중에 있다.

올해 초 어산농장 위대량 대표 외 28농가가 평가기준인 가축분뇨 및 사육 밀도 적정 처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 가축방역시설, 소독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아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선정됐다.

앞서 장흥군은 선정농가를 방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서를 전달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구례 반야원, 전남도 제21호 민간정원 등록

구례군은 광의면 마산면 수월리 ‘반야원’이 지난 달 전남도 제21호 민간 정원으로 등록됐다고 31일 밝혔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정원으로 반야원이 등록됨에 따라 구례군은 쌍산재(민간 정원 제5호)와 1000개의 향나무 숲(민간 정원 제14호)을 포함한 3곳의 민간 정원을 보유하게 됐다.

반야원은 2만84㎡ 부지에 허브테리아 향기정원, 수경 식물정원, 카페 정원, 주차장, 화장실, 플라타너스 카페, 갤러리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문화공간을 갖추고 있어 구례의 새로운 힐링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55종의 수목과 초화류가 식재돼 있으며 중앙에는 70년 넘은 수령의 플라타너스가 정원 랜드마크 휴식처가 되고 있다.

반야원 입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며 전화(061-782-0600)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김상현 기자